

보성군

병오년(丙午年) 적토마의해, 보성군은민선8기동안축적해 온 성과를 동력 삼아 본격적인 질주에 나선다. 민생 안정부터 농림축산산업 고도화, 해양·관광 인프라 확충, 권역별 균형발전까지 전분야를 아우르는 종합 실행 전략을 가동하며 2026년을 향한 도약에 속도를 더한다.

보성군은민선 7기부터민선 8기까지 흔들림 없이 이어진 청렴 행정의 신뢰와 개칭 이래 최초로 본예산 7천억 원 시대를 연 안정적인 재정기반을 바탕으로 2026년을 군민이 체감하는 '완성의해'로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보성군, 2026년 '청렴·민생·관광' 3대 분야 '완성의해' 선언. 보성군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주관한 '2025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4년 연속 1등급을 달성했다.

보성군, 2026년 '청렴·민생·관광' 3대 분야 '완성의해' 선언

■ 4년 연속 종합청렴도 1등급 ... 대한민국 유일·최초

보성군은 2025년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한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4년 연속 최고 등급인 1등급을 달성했다. 이는 대한민국 공공기관 평가 역사상 유일한 최초의 성과로, 군민과 공직자, 관계기관이 한마음으로 만들어낸 결과다.

군은 이 같은 청렴 성과를 행정 전반의 신뢰 자산으로 삼아 정책 집행력과 행정

도를 낼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보훈명예수당은 월 10만 원, 참전명예수당은 월 15만 원으로 인상하고, 보훈 시설 개선과 의료비 지원을 병행하는 실질적인 보훈 정책을 추진한다.

출생기본소득은 1세부터 18세까지 월 20만 원을 지원하고, 수막구균성 수막염, 백일해, 자궁경부암, 인플루엔자 등 고비용 필수 예방접종 비용을 전액 지원해 지

보성군은 농림축산업을 지속 가능한 고소득 산업 구조로 전환해 지역의 근간을 더욱 단단히 다진다. 저탄소 농업과 스마트 영농 확대, 지역 특화 작목 육성, 기계화 기반 확충을 통해 농업의 체질을 개선하고, 농업인이 일한 만큼 정당한 소득을 얻는 구조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전 세계적인 말차 수요 확대에 발맞춰 차산업용 전라적으로 고도화한다. 보성녹차차공유통센터 기능 고도화와 말차 가공·유통시설 현대화, 기계화 평지다원 조

■ 안전·산업·에너지 인프라 동시 확장

군민 안전과 지역경제 기반 강화에도 속도를 낸다. 취약시기별 시설물 안전점검과 산림유역관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 사업을 통해 선제적 재난관리체계를 구축하고, 보성을 도시가스 공급 확대와 천연가스 환상망 완성을 통해 에너지 인프라를 개선한다.

조성 제2 농공단지 분양과 농공단지 패

키지 지원, 청년문화센터 건립을 통해 기업은 성장하고 청년은 머무는 산업 생태계를 조성한다.

보성군 12개 읍면 전역을 아우르는 균형발전 전략도 본격화한다. 보성 복합커뮤니티센터·별교 복합문화센터를 중심으로 가족센터, 키즈카페, 작은영화관 등 생활 밀착형 문화·여가 공간을 확충하고, 시가지 지중화 사업과 도시재생, 기초생활거점 조성, 마을 만들기 사업 등을 차질 없이 추

진해 어디에 살아도 불편함이 없는 보성을 만든다.

보성군은 "초심불망 마부작침" 초심을 잃지 않고 군민과 함께 차근차근 쌓아온 노력이 청렴 4년 연속 1등급과 7천억 재정 시대라는 성과로 이어졌다."라며 "2026년은 그동안 준비해 온 보성의 모든 가능성이 하나의 확실한 성장으로 완성되는 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보성/김운기 기자

7천억 재정 기반 위에 민생·농업·해양·관광 미래 전략 본격 가동 탄력 붙은 보성군정, 2026년 적토마의 해 '결승선' 향해 질주

안정성을 더 강화할 방침이다.

■ 민생 안정 최우선, 보성사랑지원금·보훈·돌봄 확대

민생 안정은 2026년 군정의 최우선 과제다. 보성군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설 명절 이전 전 군민에게 1인당 30만 원, 총 114억 원 규모의 보성사랑지원금을 지급해 가계 부담을 덜고 지역 상권 회복에 속

역이 함께 양육에 참여하는 환경을 조성한다.

또한, 고독사 예방 스마트 안심 서비스,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응급 키트와 휴대용 비상 호신벨 지원, 장애인 공공 일자리 확대, 보성형 통합 돌봄 시행 등을 통해 복지 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구축한다.

■ 농림축산업 경쟁력 강화... 보성의 근간을 미래 산업으로

성을 통해 보성차의 제2 부흥기를 본격화할 계획이다.

국내 최대 키위 주산지로 성장한 경쟁력을 바탕으로 신활력플러스사업을 통해 키위 거점센터를 운영하고, 키위를 보성 농업의 미래 성장축이자 핵심 소득 산업으로 육성한다.

축산 분야에서는 가축분뇨 처리와 약취저감, 방역시설 확충을 병행하고, 농산물 안전성 분석실 확대와 업체별 맞춤형 수출 지원을 통해 현장에서 체감하는 농정을 이어간다.

해양·어업 분야에서는 국가중요어업유산인 보성 빨배어업의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를 추진하고, 보성별교 세계자연유산 지역 관리센터 조성과 별교꼬막 리본 프로젝트 등을 통해 보성의 해양 자산을 세계가 주목하는 가치로 확장한다.

■ 문화·관광 인프라 대전환 ... 남해안 대표 거점 도약

문화·관광 분야에서는 열선루 이순신 역사문화공원을 중심으로 이순신 광장과 산책로, 야간 경관조명, 방진관과 호국의 문을 조성해 보성을 대표하는 역사문화 랜드마크를 구축한다.

국내 최장 길이의 스킨스쿠버 시설을 갖춘 울포해양복합센터와 울포 프롬나드, 울포항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을 연계해 울포를 남해안 해양관광의 중심 거점으로 육성한다. 특히 국가여행 예비 대상항인 울포항에는 717억 원을 투입해 방파제 등 기반 시설을 확충한다.

더불어, 태백산맥 테마파크, 제석산 수석공원, 구들장 힐링파크, 오봉산 생태탐방로를 차례로 완공해 보성 전역을 하나로 잇는 자연·치유형 관광 네트워크를 완성한다. 반다비 체육센터와 VR체육시설, 별교 국민체육센터 개관, 별교 파크골프장 조성 등을 통해 생활체육 기반도 대폭 확충한다.



동·호지정 계약 중

3,214세대 거대한 움직임이 시작되다.

운암자이포레나 퍼스티체

XI | FORENA

방문예약시
스타벅스 기프트카드 증정!

※ 상기 CG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NO.1 BRAND	총 3,214세대 대단지의 품격	원스톱·도보 학습권	일상을 높인 특화설계	다채로운 커뮤니티	쾌적한 에코라이프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 자이와 포레나의 합작	북구를 대표할 대규모 브랜드 타운	단지내 어린이집 및 단지 앞 경양초, 운안중 등 안심 학습권	채광과 조망을 고려한 남향 위주 단지 배치, 조망형 유리난간 적용, 세대 전용 창고 등	교보문고 북 큐레이션, 오픈 카페스테이션 전 타석 GDR골프연습장 및 스크린 골프 등	약5.5만㎡ 규모의 단지 조경과 운암산, 종의곡원 등 힐링 자연환경

발코니 무상

중도금 무이자

일부 품목 무상

+

파격적 혜택

총 3,214세대 중 일반분양 1,192세대 [전용 59㎡ / 75㎡ / 84㎡]

062) 607-8338

시흥 운암 3단지 재건축정비사업조합
시흥 GS건설
(주)한화/건설
HDC 현대산업개발